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학생들이 경험하는 임용시험 중도포기 및 탈락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조기범¹, 김승용^{2*}

¹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강사, ²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조교수

An Ecological Approach to Physical Education Students' Drop-out and Opt-out a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bout Teacher Appointment Examination of Secondary School

Ki-Bum Cho¹, Seung-Yong Kim^{2*}

¹Lecturer, Division of Sport Science, Hanyang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Major i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생태학적 모델을 바탕으로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학생들이 임용고사 시험에 중도포기하거나 탈락할 수 있는 요소들을 탐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으로 학업중인 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요소 측면으로는 학업에 영향을 끼치는 현재 직업을 임용고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용고사 준비를 위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결정 할 필요가 있었다. 개인 간 요소 측면으로는 주관적 규범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개인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었다. 조직 간 요소 측면으로는 학비지원의 미흡과 학업을 위한 부적합한 장소가 강조되었으며 실기 지도 강사 혹은 임용시험 준비반과 같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했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임용시험 대비 통합시스템'에 대해 소개하였다.

주제어 : 임용고사, 체육교육, 교육대학원, 생태학적 모델, 중도포기, 중도탈락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factors that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tudents i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rop out of teacher appointment examination of secondary school by using Ecological Model. The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for 10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tudents studying in school of education. As an aspect of the intrapersonal component, the effort to apply how participants' current job positively affects their preparation for teacher appointment examination is required and they need to clearly decide academic priorities to prepare for teacher appointment examination. As an aspect of interpersonal component, participants are negatively affected by subjective norm, thereby providing personalized mentoring program is required. As an aspect of organizational component, limited tuition support and inappropriate place to study are emphasized, so practical helps like sports practice instructor or teacher appointment examination preparation class is required.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integrated system for teacher appointment examination.

Key Words : Teacher Appointment Examinatio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cological Model, Opt-out, Dropout

*Corresponding Author : Seung-Yong Kim (dragonkim@dau.ac.kr)

Received November 12, 2018

Accepted January 20, 2019

Revised January 2, 2019

Published January 28, 2019

1. 서론

학생 진로 및 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육부는 6대 교육개혁을 발표하였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이러한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2000년도부터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추진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을 위한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 강화 등 교육과정의 발전은 지속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교사교육의 발전은 제도적 지원의 미흡으로 인해 정체되고 있다[1].

교사교육 발전을 위해 출발점에 있는 교사양성기관으로는 대표적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사범계 체육교육과,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이 있으며 비 사범계에서 교직과정 이수를 통한 자격 취득의 방법이 있다. 이 중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은 학부가 아닌 석사과정으로서 학부과정과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즉, 교육대학원은 특수대학원으로서 학부수준에서 제공 되어지는 교육 수준 및 교육기관으로서의 질을 넘어 보다 전문적이면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사로서의 자질 함양과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요구되어 지는 곳이라 이해 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은 본래 교육행정이 및 교사재교육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석사학위 과정이라 할 수 있다[2]. 그러나 최근에는 교원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중등 정교사 자격증의 취득을 위해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있으며[3], 교육대학원 졸업자들에게 교원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예비교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4]. 이는 최초의 교육대학원(1963년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설립 취지와는 많은 차이가 있으나, 교육대학원의 양적 성장과 함께 교육환경이 바뀌면서 각 전공 분야의 교육 지도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변화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5]. 이러한 현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들은 교육대학원을 통하여 교원을 배출하고 있으며,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교육대학원은 전국적으로 114개 학교, 재적학생 수는 34,723명으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6]. 이는 많은 학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대적으로 직업적인 안정성과 사회적 인식에 따른 교사를 선호하는 현상에서 비롯된 영향임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졸업생의 교원 입성은 녹록치 않으며, 심지어 학업을 포기하거나 전혀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빈번하게 접할 수 있다[2].

한편, 시대적인 특징과 더불어 체육교육전공 교원에게는 최근 학생들의 안전과 개인위생 및 창의, 융합 인재의 양성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복합적으로 증가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재다능하고 능력 있는 체육교원의 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시대적·사회적 요구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시행하고 있는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통해 교원 양성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원양성기관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수준의 체계적 관리의 도모로 이어지고 있다[7]. 이와 관련하여 교원양성기관 평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4주기 평가를 마치고 2018년도부터 순차적으로 5주기 역량진단 평가를 앞두고 있다.

이 평가를 통해 교육대학원의 정원유지, 감축 또는 폐과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은 흐름을 토대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교육대학원간의 학생 유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 질 것이며[8], 생존을 위한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9]. 또한 양적으로 급속하게 팽창되어 왔지만 교육프로그램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설립취지에 맞지 않으면서도 비체계적이고 산만하게 운영되어 온 교육대학원은 그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10]. 이와 같이 교육대학원이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듯이 교육대학원에서의 체육교육전공 또한 그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교육대학원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육대학원의 운영 사례와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11-14]가 이루어져왔고, 또한 교육대학원의 역할 및 제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15,16] 등이 수행되어져 왔다. 특히 체육교육전공과 관련해서는 실제 수업과 관련하여 예비체육교사들의 수업지도에 관한 경험 및 실행, 학습에 대한 연구[17-19] 그리고 체육교육전공 학생들의 전공경험 및 진로고민과 중도탈락에 대한 연구[20,21] 등이 발견되었으며 개인, 부모, 대학원 및 학업환경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학생들의 임용고사 중도포기를 연구하는데 있어 생태학적 관점은 보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과 환경은 분리될 수 없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생태학적 모형(Ecological model) [21]을 통해 각각의 모형 내

변인들이 임용고사 중도포기 및 탈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생태학적 모델에 포함된 거시체계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동일한 사회 및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되므로[22]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학생들 중 임용고사 준비 학생들이 겪는 현실적 경험을 생태학적 모델을 바탕으로 이해함으로써 임용고사 시험에 중도포기 및 탈락할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학생들이 임용고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겪는 현실적 경험을 확인하고자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심층면담을 위한 반구조화 된 면담지를 활용하였다. 체육교육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교육대학원들 중 수도권 1곳(A)과 비 수도권지역 1곳(B)을 선정하였으며 심층면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여 희망자만을 연구에 참여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10명의 학생들과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참여자 정보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ame	age	gender	school	current job
1	WY	27	male	A	Trainer
2	MS	28	male	A	Tennis coach
3	EH	28	male	A	Soccer player
4	HJ	30	male	A	Basketball coach
5	YK	31	male	A	Military officer
6	MH	26	female	A	Academy instructor
7	KH	29	male	B	Soccer coach
8	JN	28	male	B	Sports instructor
9	HD	27	male	B	After-school instructor
10	SH	26	male	B	no job

2.2 연구도구

반구조화 된 심층 면담지는 임용고사 지속여부를 결정짓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Bronfenbrenner [21]의 생태학적 모형을 본 연구의 개념적 틀로 활용하였

으며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가 집단과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최종 면담지를 작성하였다. 면담에서 쓰인 질문은 총 3개 영역의 27문항이었으며 개인특성을 묻는 12문항, 개인 간 요소를 묻는 6문항, 조직 요소를 묻는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면담 참여자 개개인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결과와 사용, 그리고 면담 내용의 녹음에 대해 동의를 구하였다. 심층면담은 2018년 4월부터 6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A대학은 6명, B대학은 4명이 참여하였다. 교육대학원건물의 빈 강의실에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150분에서 200분가량 지속되었다. 심층면담은 질적 연구로서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경험, 느낌, 지식, 태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하였다.

2.4 자료 분석

연구자는 면담을 통해 수집된 내용을 Spradley [23]의 귀납적 범주분석 방법(inductive categorical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컴퓨터로 전사(transcription)하였으며, 전사된 자료를 2-3회 이상 반복해 읽고 주제 영역 속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선정한 뒤 관련된 단어 및 문장을 주제별로 귀납해 범주화(categorization)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범주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연구 참여자들에게 돌아가 면담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문헌 연구 자료들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2.5 연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된 자료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들을 거쳤다. 첫째,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참여자들에게 돌아가 면담 내용에 대한 재확인(member check)을 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를 통해 불명확하거나 애매한 표현이 포함된 면담 내용들을 확인하는 노력을 하였다. 둘째,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를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자의 과장된 해석을 최소화하고, 알맞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는지, 면담내용이 주제별로 적합하게 범주화되었는지에 대해 동료 연구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말한다[24]. 본 연구는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동안 교육대학원 주임교수, 교육대학

원 졸업자, 그리고 질적 연구를 전공한 박사 졸업자와 수 차례 비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면담 내용에 대한 의미를 적합하게 분석하는 노력을 행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임용고사 지속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특성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으로 학업중인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임용고사를 지속하기 위한 개인적 특성들을 탐색하는 것은 주변의 도움 혹은 환경의 영향 없이 개인의 노력으로 임용준비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요인들 중 무엇들이 존재하는지 인터뷰를 통해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3.1.1 현재의 직업을 임용고사준비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중요성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대체로 생활유지 및 학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생활패턴이 임용고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일하는 부분과 대학원에서의 생활이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는 조금씩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일을 하고 또 밤에는 수업을 들어야 하니까 조금씩 피로도 쌓이는 것 같은데 어차피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JN)

“아침에 05:10분쯤에 일어나서 수영장에서 운동하고 9시부터 17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시간에 임용고사 준비를 위해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정도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하긴 했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YK)

이렇게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오전·오후 일과시간동안에는 직장에서, 그리고 저녁 및 야간에는 대학원 수업과 임용고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다시 말해 직장을 다니면서 임용고사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하느냐는 전적으로 개인태도와 전략에 달려있을 것이다. 참여자들 중 일부는 편입학원의 실기강사나 방과 후 강사 등의 직장경험을 임용고사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결고리로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학원 수업 끝나면 밤 10시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아침에 출근해서 오전에 체육수업을 도와주면서 임용실기 준비 동작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오후에는 축구부 아이들 가르치면서 구기 종목 실기 준비를 하구요. 이렇게라도 연습을 해야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KH)

“지금 하고 있는 편입학원 강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임용고사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입을 위한 실기종목들이 임용고사 실기종목준비에 도움이 되는 편이고 또한 이론과목들도 임용시험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기초지식을 쌓는 정도로는 도움이 되는 편이라 지금 직장을 다니는 것에 대해 만족합니다.” (MH)

반면 직장생활이 대학원 및 임용고사준비를 지속하는데 있어서 큰 장애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월, 수, 금, 토, 일 아침 6시-저녁 10시까지 일하고 화, 목에는 교육대학원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사실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어서 현재까지 임용고사를 위한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요즘 일을 그만두어야 할지 임용준비를 포기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MS)

“월, 수, 금에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하는데 이러한 사이클을 겪다보니 자연스럽게 다음날에 늦잠을 자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뭔가 임용을 계획해서 하려고 하더라도 제 생활자체가 불안정하거나 집중력 있게 공부하기가 정말 어려워져서 이러한 삶의 패턴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임용준비하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HJ)

참여자들의 직장생활이 임용고사 준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의견들을 내놓는 이유는 직장생활을 임용고사준비에 어떤 형태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의 유무에 따른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시간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3.1.2 임용고사준비를 위한 우선순위 결정의 중요성

참여자들은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지속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용고사를 준비하기 위한 우선순위에 대해 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대담을 머뭇거리거나 임용고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일반적 수준의 대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대담들은 참여자들이 임용고사에 대한 기초지식뿐만 아니라 기본방향에 대해 전혀 인

지를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임용고사라는 장기간 레이스를 위해 어떤 학습방향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다.

“임용고사는 마라톤과 같아서 남들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서 저만의 공부 방식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S)

“이론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서술하시오 라는 이런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도 많이 부족한데 그것을 또 이론적으로 서술한다는 것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글 쓰는 연습이나 제 생각을 뚜렷하게 표현하거나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JN)

“절대적인 공부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이미 교육대학원을 들어올 때부터 각오했던 부분이라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막상 타치면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는 부분 때문에 매년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까요(MH)

결국 참여자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적절한 학습방법을 통해 임용고사준비를 하는 것에 대한 지식수준이 큰 변수로 작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참여자 본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장애물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임용고사라는 시험은 큰 장벽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참여자들이 임용고사를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에서 찾을 수 있었다. Wigfield & Eccles[25]는 학업의 지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재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체육교육자가 되기 위한 동기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거나 체육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대답은 조금 달랐다.

“중학교 2학년 때 체육선생님이 너무 멋지셔서 그때부터 체육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YK)

“임용고사를 봐서 체육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한다거나 내지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사립은 힘들 것 같아서 임용고사를 보려고 합니다 (SH)

이러한 대답들을 통해 체육교사가 왜 되어야 하고 왜 자신이 교육대학원에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국 임용고사준비를 겪으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다시 말해 교육자가 되기 위한 직업적 사명감의 불명확성은 임용고사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심지어 아예 하지 않게 되는 부정적 영향을 낳고 있었다.

“저는 아직 노력은 안하고 있습니다.” (KH)

“일단 지금 현재는 주변에 있는 선배들을 통해서 조언을 구하고 정보를 구해보기는 하는데 아직 시간을 많이 투자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JN)

“아직은 임용고사를 위해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정도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험전략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YK)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요소가 임용고사준비를 지속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탐색해본 바 교육대학원에 재학하면서 함께 병행하고 있는 직업을 어떻게 임용고사준비에 활용하는지에 대한 전략이 중요하였으며, 또한 참여자 개개인이 왜 교육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에 대한 태도가 임용고사준비를 지속하게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인적 특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2 임용고사 지속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 간 요소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임용고사준비를 지속시키는데 영향을 끼치는 개인 간 특성들을 탐색하는 것은 개인의 태도 및 지식수준만큼이나 임용준비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행동심리학의 계획된 행동이론에서도 (Theory of Planned Behavior) [26] 어떠한 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은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친구, 부모, 교수 및 강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그러한 요인들이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3.2.1 동료들과의 의사소통 중요성

참여자들은 교육대학원에 함께 재학 중인 동료들로부터

터 임용고사준비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밝혔으며 그러한 동료들로부터 긍정적 혹은 희망적 메시지도 다는 부담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친한 친구 한명이 있었는데 학창시절부터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친구여서 임용고사를 한 번 만에 합격할 줄 알았는데 동안 공부를 하고 합격하는 모습을 봤고 특히 마지막년 동안은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일을 하면서까지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MS)

“임용고사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밤 먹고 자는 시간 빼고 공부만 해야한다는 소리를 합격한 친구들한테 하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말들이 오히려 부담감을 줍니다 그러다보니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괜한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어서 그럴 때 마다 내가 임용고사를 꼭 봐야할 필요가 있나 싶은 마음이 크고요 (HJ)

이렇게 동료들의 어려움 혹은 고생의 과정에 대해 참여자들은 긍정적 자극보다는 회의감과 좌절로서 표출되는 경향을 보였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는 주관적 규범이 학습자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학습자의 목표행동을 위한 동기를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다[27].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임용고사에 합격한 동료들로부터 나오는 동떨어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임용고사를 지속하는데 있어서 참여자들의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함께 공부하는 동대학원의 동료들로부터는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같이 입학한 동료들과 대화해보면 단순히 자격증 따기 위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렇다보니 진지하게 임용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입학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당 동료들과 이야기하면 한심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당 (HJ)

“대학원은 함께 듣는 수업자제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또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가령 누구는 하루 종일 일하고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는 반면 누구는 아예 임용만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저 같은 사람과는 공부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WY)

흥미롭게도 참여자들은 임용고사에 합격한 동료들로부터는 좌절감에 따른 부정적 반응을 그리고 대학원의

동료들로부터는 본인의 경험 혹은 판단에 의한 냉소적인 시각에 따른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시 말해 임용고사에 합격한 동료들은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대학원의 동료들은 서로 비협력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대학원에서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긍정적 자극을 줄만한 적절한 롤 모델(Role model) 혹은 협력자들을 탐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3.2.2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와 강사의 수업내용 및 자세의 중요성

참여자들은 교육대학원 교수 및 강사의 수업내용 및 의사소통이 임용고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님의 수업을 듣다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임용고사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당” (SH)

“임용고사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교·강사 분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임용고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시면 저도 덩달아 준비를 그만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고 반면에 희망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괜히 힘이 되고...” (WY)

그러나 참여자들 대부분 교수 및 강사들의 태도가 현재 임용고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는 무관심 및 교류기회가 없다는 것으로 그 이유를 꼬집었다.

“현재까지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들은 수업에 대한 열정이나 학업적인 부분은 굉장히 뛰어나고 또 그 열정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업 외적인 부분에서 임용고사와 관련해서는 거의 말씀을 안 해 주시니당 그러다 보니 임용고사와 관련해서는 거의 도움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JN)

“교수님이나 강사님들과는 교류가 없기 때문에 임용과 관련된 정보를 들을 일이 없어서 불안한 마음이 사실이고 다른 학교들도 다 이런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당 HJ)

“교육대학원의 교수님과 강사님들을 따로 뵈 일 없는데다가 수업인원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중강할 때까지 저희들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당 게다가 체육대학에 행사가 있으시

다고 휴강도 많이 해서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저희들은 뭔가 후속순위에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YK)

또한 참여자들은 임용고사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느끼는 어려움 혹은 부족함에 대한 책임을 모두 자신들이 안고 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수업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교사가 되려고 하느냐고 혼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마다 부끄러우면서도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임용고사와 관련하여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MH)

“전문적으로 고용된 교육대학원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는게 아니라 체육과 교수님들이 교육대학원으로 넘어와 수업을 하거나 강사 분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체육과 교수님들은 휴강도 많이 하시고 시간을 때우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강사 분들은 자주 바뀌다보니까 사명감이 많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시다.”(EH)

이렇게 교·강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원인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교육대학원의 교·강사 운영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두 개의 교육대학원에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교육대학원 소속이 아닌 체육대학 소속이 대부분이었으며 강사들 또한 매학기 바뀐다던지 혹은 매학기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담당 교과목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대학의 교과목들과 달리 강의 간에 연속성 및 연결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교육대학원의 특성상 교육대학원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 및 강사들은 수강생들이 임용고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였다. 실제로 서울·경기권의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20곳의 교수진을 확인해 본 결과 교육대학원에 전임교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3곳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체육대학 교수들이 교육대학원 수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Jang [28]은 교육대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대부분의 교수들은 학부생들을 동시에 지도하고 있으며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육대학원생에 대한 소홀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시간과 학교지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학부의 교수들이 교육대학원 수업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교

육대학원의 질적 향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3 임용고사 지속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학교요소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임용고사준비를 지속시키는데 영향을 끼치는 학교요소들을 탐색하는 것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주변 환경의 개선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는 학생들이 임용고사준비를 위한 모든 관심과 지원의 출발점이 되며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업이 임용고사준비에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 대해 탐색할 수 있었다.

3.3.1 학비 보조시스템의 결여

교육대학원의 평균 한 학기 등록금은 국립의 경우 2-3백만 원 그리고 사립의 경우 4-6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29]. 다시 말해 평균 4학기 과정으로 가정하고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국립은 1천만 원 그리고 사립은 2천만 원이 지출된다. 이러한 비용의 등록금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20대 중·후반의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며 이러한 이유로 파트 타임 등을 통해 학비를 보조하면서 교육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니 세삼스러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대학원 들어오는 시기가 20대 중후반인데 사범대나 교원대 나온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미 몇 살 뒤늦게 공부를 시작 하는거라 경제적인 압박을 더 받을 테고 게다가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게 임용 준비하는 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랑 대화하면 매우 힘들다고 들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YK)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 등록금을 아직까지 부모님께서 내주시고 있지만 저도 나이 20대 중반이 넘어가다 보니 부모님께서 이제 슬슬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하는게 어떨겠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비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SH)

하지만 정작 문제는 특수대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비 보조시스템이 일반대학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조사된 두 대학의 일반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의 장학금 제도를 비교했을 때 겉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보였

으나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비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교 장학금의 기회는 서로 큰 차이가 있었다. 비록 조교 업무가 학업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교육대학원은 일반대학원에 비해 조교 장학금 등을 통해 학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물며 실제 이 연구의 참여자들 중에 조교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혹은 정보에 대해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참여자들은 교육대학원을 선택할 때 임용고사준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 커리큘럼이나 우수한 교수진을 보고 입학할 결정하기보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졸업이 가능해 등록금을 절약할 수 있는 학교를 선호하였다.

“제가 알기로 전국에 몇 개 교육대학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업 내용이나 이렇게 대충 대응하는 분위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쉽게 받으면서 졸업할 수 있고 등록금싼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YK)

“같이 입학한 동료들과 대화해보면 단순히 자격증 따기 위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다보니 진지하게 임용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입학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선배들도 교육대학원은 자격증을 쉽게 따고 등록금싼 곳으로 입학하는게 최고다라는 식으로 조언을 건넨 경우가 많습니다” (HJ)

이러한 결과는 교육대학원이 교원양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경험기회 및 학생지원과 같은 질적 성장보다는 입학에 대한 문을 낮추고 빠른 시간 안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도와 예비 입학학생들을 유치하려는 양적성장에 집중을 한 결과로 보인다.

3.3.2 임용고사준비를 위한 제한된 장소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분석해 본 결과 임용고사 준비를 위해 적절한 학습 환경을 탐색하는데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은 학생들이 임용고사준비를 지속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학업을 중도포기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인문사회의 대학원생들이 자연과학의 대학원생들에 비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밝혔는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학업 및 진로 지도를 위한 스터디 룸 혹은 연구실의 유무였다[30]. 다시 말해 동료 및 교수를 통해 학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의 유무가 학업을 지속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적절한 교육환경은 없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이나 카페 정도 가서 공부하는 정도라 제대로 된 교육환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KH)

“저는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려고 왔었는데 일주일에 두 번만 학교에 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도서관이 여전히 이질감이 느껴져서 다른 학교 도서관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집에서 하는 편입니다.” (MH)

“저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교육환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환경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HD)

이 연구를 위해 조사된 교육대학원들은 임용고사준비를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었으나 단순히 책상공간만을 제공하는 환경에 불과해 학생들이 임용고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사범대학에서는 흔하게 있는 임용고사 특강 혹은 전문실기강사의 지도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 대부분이었다.

“임용고사에 도움이 되는 심화수업을 할 수 있는 전문 강사 혹은 최신임용고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특강 같은 수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학생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HJ)

“임용고사를 대비할 수 있는 실기강사와 체육관을 지원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육대학원 학생 스스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학교에 오다보니 소속감이 부족하고 약간 이방인과 같은 느낌이 들다보니 임용고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MS)

참여자들의 인터뷰 결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의 미흡한 지원과 무관심이 학교에 대한 소속감 및 애교심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보였으며 이로 인해 학교를 임용고사 준비를 위한 주요 공간으로 인식하기보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간으로 잘못 인식(misconception)되고 있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학생들이 임용시험을 중도포기하거나 탈락하는 문제에 대해 개인, 개인 간, 조직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학적 모델을 활용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밝혀진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임용고사 준비를 지속시킬 수 있는 결론 및 제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교육대학원 학생들은 학업에 영향을 끼치는 일상생활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되기 위한 방법 중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들은 일반적으로 학부과정 수준에서 임용고사 준비가 이뤄지는 경우이며 결혼과 취업과 같은 문제들이 학업에 방해가 될 만큼 큰 스트레스 요인이 아니다. Lee [31]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큰 스트레스 요인은 가족이나 장애, 경제문제보다 친구 및 가치관에 따른 문제들로 스트레스의 지속이 단기적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는 재학생들은 인터뷰 결과에서처럼 소수를 제외하고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을 한 경우도 있었다. 다시 말해 교육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임용고사를 준비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학부생 수준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2]. 그러므로 일상생활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요인이 임용시험을 중도포기 및 탈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으려면 임용고사 준비를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Britton & Glynn [32]은 학업을 중도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을 공부하는 방법과 불명확한 우선순위에 있다고 하였다. 인터뷰 결과처럼 상당수의 참여자들은 본인들의 직업과 임용고사준비와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소비가 곧 임용고사 준비시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교육대학원 재학생들은 학비 마련을 위한 직업을 선택할 때 임용고사준비에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현장 내의 직업들을 선택함으로써 체육 임용시험준비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방과 후 교사, 자유학기제 강사, 학교 클럽스포츠 강사 등과 같은 직업을 통해 학교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육 임용고사 실기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현장의 체육 교사

등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같은 내재적 가치를 향상시켜 임용고사 준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동기를 자극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개인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특성을 고려했을 때 교육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배경은 매우 상이하였으며 이에 따라 임용고사에 합격한 동료 혹은 정보제공자인 교·강사들로부터의 상담에 따른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에 대한 영향이 양분되는 것으로 인터뷰결과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업 및 동기 수준이 차이가 크다는 의미로 임용시험 합격수기 혹은 임용고사 특강과 같은 전체학생을 위한 일반적 수준의 프로그램으로는 교육대학원 학생들의 임용시험 지속을 이끌어내기가 미흡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개개인의 학업 및 진로 동기를 커리어맵 작성과 같은 도구를 통해 임용시험 준비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소셜 멘토링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참여자들은 교육대학원의 동료 및 교·강사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이유로 서로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멘토링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 장애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교육대학원의 전공별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학생-학생, 학생-교·강사가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임용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주관적 규범에 대한 작용이 긍정적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대학원에서는 형식적인 수준의 지원확대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임용시험 대비 통합시스템'을 도입시킬 필요가 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교육대학원 선택 시 학비가 저렴한 곳으로 입학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학비를 보조하기 위해 학기 중 파트 타임 직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보조시스템이 확대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교육조교 혹은 행정조교를 확대하거나 다양한 인센티브제도(ex. 임용고사를 졸업과 동시에 합격하는 경우 일정학비를 환급)들을 통해 교육대학원의 학생들이 보다 임용시험 준비에 노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용시험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중요하다. 본 연구대

상인 교육대학원들 모두 임용고사반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책상만 있는 교실을 제공한 것으로 학교에 지속적으로 나와 공부를 할 만큼의 환경이 아니었다고 인터뷰 결과에서 밝혀졌다.

따라서 단순한 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실기 지도 강사의 특강이나 임용고사 관련 서적의 비치와 같은 임용고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업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앞서 제시한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학비보조시스템의 확대, 임용시험 준비반 운영, 실기 지도 강사의 특강 개설에 대한 내용이 강조된 임용시험 대비 통합시스템이 조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학생들의 임용시험 중도포기 및 탈락의 가능성은 충분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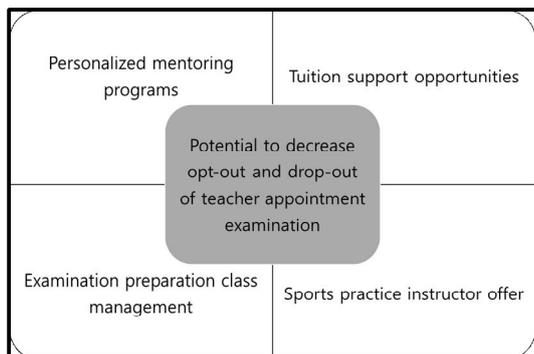


Fig. 1. The introduction of integrated system for teacher appointment examination

REFERENCES

- [1] J. Ko. (2001). A review about the policy-making process of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teaching profess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19(3), 99-123.
- [2] J. S. Ham. (2017). Exploration of career concerns and conflict factor in dropping ou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7), 621-640.
- [3] S. M. Shin. (2013). *A study on the level of student satisfaction toward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4] J. S. Han. (2002). Functions and Roles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What should be changed?. *Yonsei Educational Science*, 50, 1-11.
- [5] K. B. Cho & S. Y. Kim. (2017). A Study on Students' Difficulties Before and Throughout Physical Education Program a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1), 603-610.
- [6]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2018). 2017 Educational Statistics Annual Report. Retrieved from <https://kess.chedi.re.kr/index>
- [7] *National Evaluation Center for Teacher Education Institutions*. (2018). Retrieved from <https://necte.chedi.re.kr/nectevview.do?view=content/webhome/home>
- [8] J. H. Choi. (2010). Curriculum Satisfaction of Music Education Majors in Korean Graduate Schools of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8, 149-171.
- [9] S. J. Lee & H. W. Shin. (2008). The Opera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urse i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nd the Graduate Students' Percep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4), 173-186.
- [10] D. T. Kwon. (2014). The Study on the Developmental Plan for Re-Educational Function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ournal of the Elementary Education Society*, 20, 1-16.
- [11] B. S. Kang. (2013). *Graduate Students' Perception of Curricula of Elementary Music Education of Graduate Schools of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cheon, Korea.
- [12] B. C. Kim. (2015). An Analysis on the Condition of Operation on Major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3(1), 25-54.
- [13] H. J. Kim. (2012). The Analysis of The Art Education Management in 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rt Education Research Review*, 26(2), 125-144.
- [14] C. Y. Lee. (2004). A Study for the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9, 127-163.
- [15] H. N. Lee & C. S. Cheon. (2008). A Study on the alternatives of reform system on graduate school education.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Review*, 5(2), 81-114.
- [16] U. S. Choi. (2003). A Study on the Rol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s an Institution of Higher Adult Education.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9(3), 173-200.

[17] M. Y. Kim. (2015). Study on the Experiences of Pre-service P. E Teacher s Reflection through Educational volunteering and Inquiry on the Educational meaning.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2)*, 639-661.

[18] W. J. Kim. (2010). Study of self-reflective process on pre-servic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microteaching. *Korean Association of Sport Pedagogy, 17(1)*, 25-52.

[19] Hwang, Y. J., & You, J. A. (2013). Exploring Practical Experience of Pre-servic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in Team Teaching.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0(2)*, 49-75.

[20] H. R. Park. (2015). A narrative inquiry about the experience by graduate students of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 29(2)*, 383-404.

[21]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22] M. J. Park & B. G. Choi. (2004). The ecological variables on adolescent relational aggress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22(4)*, 95-104.

[23] Spradley, J. P. (2016). *The ethnographic interview*. Long Grove, IL, USA: Waveland Press.

[24] Stainback, S & Stainback, W. (1988). *Understanding &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Reston, VA, USA: Publication Sales.

[25] Wigfield, A., & Eccles, J. S. (2000). Expectancy - value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68-81.

[26]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27] Montano, D. E., & Kasprzyk, D. (2015). Theory of reasoned acti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the integrated behavioral model. In Glanz, K., Rimer, K. B., & Viswanath, K. *Health behavi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95-124). San Francisco, CA, USA: Wiley.

[28] Jang, I. S. (2004). A study of American graduate curriculum in school of education: A case study.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0(1)*, 171-194.

[29] Higher Education in Korea (2018). Tuition fees. Retrieved from <http://www.academyinfo.go.kr/UIPISA/uipnh/unt/ipsrch/UntUntCprsSrchrviewer.do>

[30] Girves, J. E., & Wemmerus, V. (1988). Developing models of graduate student degree progress.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9(2)*, 163-189.

[31] E. H. Lee. (2004). Lif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ollege students: Testing for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with structural equation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1)*, 25-52.

[32] Britton, B. K., & Glynn, S. M. (1989). Mental management and creativity. In John A. G., Royce, R. R., & Cecil, R. R. *Handbook of creativity* (pp, 429-440). Boston, MA, USA: Springer.

조 기 범(Ki-Bum Cho)

[정회원]



- 2004년 2월 : 한양대학교 졸업(체육학사)
- 2011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체육학석사)
- 2016년 12월 : 웨스트버지니아대학교 대학원(체육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강사
- 관심분야 : 학생건강증진, 학교체육 통합 프로그램 개발
- E-Mail : rotc11542@hanyang.ac.kr

김 승 용(Seung-Yong Kim)

[정회원]



- 1999년 2월 : 한양대학교 졸업(체육학사)
- 2002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체육학석사)
-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체육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 전공 조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교육학, 생활스포츠, 학교보건
- E-Mail : dragonkim@dau.ac.kr